

Gary Yates 박사, 제12권, 세션 29, Joel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요엘서의 29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요엘서의 메시지, 배경, 의미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요엘서는 12권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즉각적인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2장의 순서와 배열을 보면 요엘서는 거기에 나열된 두 번째 책이고 앗수르 선지자들 중에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 중에서 요엘을 보는 것입니까?

여기서 문제이자 문제의 일부는 요엘서의 연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학자들 스스로가 이리저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며, 이 책이 여러 가지 다른 배경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다른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12장에서 이 책의 위치와 배열에 기초하여, 초기 학자들은 이 책의 연대를 아주 일찍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일부 해석자들은 심지어 기원전 9세기로 연대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 소선지서 중 가장 초기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침공 직전에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침공 직전의 다른 사람들. 나는 둘 다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는 곧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는 최근에 이 책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 초기에 쓰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 그리고 내 생각에 가장 최근의 합의는 요엘서의 연대를 포로기 이후 시기로 추정하고 6세기 말이나 5세기 초 어딘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쟁이 있지만 지금이 요엘서가 기록된 결정적인 시기임을 완전히 식별하거나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배 이후 기간에 우리에게 데이트를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엘은 책 밖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엘이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다른 역사 기록이나 구약의 역사서에서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선지자의 사역 기간을 나타내는 역사적 표제가 없습니다.

요엘이 사역을 수행할 때 나타났을 책이나 사건, 인물의 실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명시적인 진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유배 이후 배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함께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고 나누었음이라 나의 땅. 그들이 내 백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며 남자아이를 창녀와 바꾸었고 여자아이를 포도주에 팔아 마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배되었습니다. 이는 유배 이후 시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앗시리아의 침략과 남쪽 왕국이 아닌 북쪽 왕국의 앗시리아 유배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두로 와 시돈과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을 노예로 팔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헬라인들에게 팔아 그들의 국경에서 멀리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그리스인에 대한 언급은 요엘의 사역이 포로기 이후 시대의 맥락에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연대기와 비문에서도 그리스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들은 일찍부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노예 무역에 대해 실제로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 시기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12절과 13절에는 아완과 두로, 헬라인과 두로 사이의 노예 무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시기는 6세기부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인에 대한 이러한 언급조차도 실제로는 매우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포로 이후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세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에 대한 언급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위기 직전이나 바빌론 위기 직전에 이야기한다면 이상해 보이지만, 이 책은 너무 간략해서 거기에서 언급할 것을 반드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조엘 씨, 가장 유력한 날짜는 포로 기간 이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소가 서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엘서가 포로기 이후의 책이라면, 그 연대가 사람들이 실제로 성전을 완공한 시기인 기원전 515년 이후라는 뜻입니다. 1장 14절, 1장, 16절, 2장, 17절에는 성소에 대한 언급이 있고, 성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포로기 이후의 책이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다루고 다루고자 한다면, 요엘의 사역은 기원전 515년 성전 재건축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유배 이전에 읽든 유배 후에 읽든 관계없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책의 메시지를 그다지 많이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합의는 그것이 유배 이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조금 성찰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스의 칙령과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권력이 이양된 결과로 기원전 538년과 537년에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귀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520년부터 515년까지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과 격려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 뒤에 요엘의 사역이 옵니다. 우리는 BC 458년에 에스라 시대에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 시대에 세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추측을 하여 요엘의 사역을 성전이 건축된 후인 6세기 말이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두 번째 귀환 전인 5세기 초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임함과 유다 백성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 그 땅에 황폐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형벌로 유다를 침공할 적군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와 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심판을 내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우리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라톤에서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과 동양 사이에 일종의 거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엘이 적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원전 490년에 일어난 이 대규모 전쟁과 관련하여 페르시아인이나 그리스인의 움직임과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위해 취할 일반적인 생각과 기본적인 시간표는 요엘의 사역이 기원전 500년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에,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가 있습니다. 520년에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헌신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에 반응하지만 회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엘의 사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는 또 다른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흥이 있었던 요시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순결한 예배로의 복귀가 있으며 하나님은 요시야를 축복하시고 백성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적인 길로 돌아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궁극적으로 포로 생활이 일어날 것이고 예루살렘은 586년에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을 고려하여 백성들이 마침내 여호와에 대한 신실함에 관한 언약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와 반역, 그리고 신실함에 대한 언약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일종의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들은 즉시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며 스가랴와 학개는 그들을 다시 신실하게 불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충실하다가 밀물과 썰물이 계속됩니다.

요엘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상기시켜 주시는 곳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심판, 그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에게 더 임할 심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더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들은 파괴적인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땅을 휩쓸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언약의 저주를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시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엘의 메시지는 만일 여러분이 방금 당한 메뚜기 재앙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요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스바냐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요엘서가 십이사도서의 가장 최근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십이사도서의 앞부분에 배치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주제적 관심과 사상 때문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십이사도서 전반에 걸쳐 다루어질 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오바다서, 아모스서, 스바냐서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서는 이 책을 끝까지 이어갈 십이사도의 날에 대한 강조를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 책의 앞부분과 열두 사도서의 앞부분에 주제별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이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아시리아인들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스바냐는 바벨론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요엘은 요엘 2장에서 또 다른 적군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러한 우려를 소개하기 때문에 12복음의 맨 앞에 놓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또다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다. 사람들은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최악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추가 심판을 위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2권의 시작 부분에 요엘을 배치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민족적 회개의 전형적인 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사역의 긍정적인 점은 요엘이 그들에게 주의 날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요엘의 메시지의 결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와 주의 날의 경고가 그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심판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와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심판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12권의 시작 부분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권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좌절감은 400년의 예언적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요엘서는 그 앞의 책과 연결된다. 호세아는 회개하라는 부르심과 주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호세아와 다시 연결됩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울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깨달으라고 호소하면서 서문을 시작합니다. 요엘서는 그 뒤에 나오는 아모스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폭풍처럼 천둥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모스서에도 나오는 소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12서에서 요엘의 위치는 역사적, 연대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주제적, 즉 그 뒤에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심판이 내려질 것이며, 이 모든 일은 기원전 515년의 성전 재건과 5세기 후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2차 및 3차 귀환 사이에 어떻게든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호와와 날에 대한 설명과 메시지, 그리고 그 서막인 메뚜기 재앙이 이미 이 땅에 일어났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더 많은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 전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뱃머리를 가로질러 발사한 총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요엘서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아모스서 사이의 또 다른 연관성을 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메뚜기의 침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 메뚜기를 보내 너희를 경계하게 하였더니 4장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으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요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모스는 또한 7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합니다.

아모스는 이 땅에 번질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엘이 책의 맨 앞에 배치된 방식에는 문학적 주제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결과로 그의 백성이 보기를 원하시는 국가적 반응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1절에서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시대에나 너희 조상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내 말은,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와 자녀를 다른 세대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베갯잇이 남긴 것, 메뚜기가 먹은 것입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멸하는 메뚜기가 먹었느니라.

그리고 해설자들은 여기서 메뚜기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메뚜기의 네 가지 품종과 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뚜기의 성장과 발달의 네 가지 다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뚜기에 대해 이 네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메뚜기 떼의 양, 땅을 침략한 메뚜기의 양, 그리고 그들이 농작물과 사람들의 경제에 가져온 파괴를 강조하는 수사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실 저주 중 하나는 땅의 축복을 누리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여러분의 농작물을 먹어치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다른 용어는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반영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싶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웹사이트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발생하는 메뚜기 재앙의 종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시대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메뚜기 침입과 그것이 국가의 농작물과 경제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그곳 사람들의 경험의 일부로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말 그대로 전국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웹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동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메뚜기 재앙 중 하나는 그 규모가 450평방 마일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정말 많네요. 메뚜기 떼는 0.5제곱 마일도 안되는 공간에 4천만에서 8천만 마리의 메뚜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뚜기(반 평방 마일당 4천만~8천만 마리)는 매일 자신의 무게만큼 곡물이나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크기의 떼가 매일 4억 2천 3백만 파운드의 음식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엘이 말하는 메뚜기 떼의 크기가 그 정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메뚜기 떼의 생계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것이 꽤 광범위한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기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54년에 과학자들은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영국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서아프리카부터 카리브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거두고 뿌리는 원리를 설명하고 싶다면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심었고, 군사적 침략, 포로, 정복의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심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과 농작물을 완전히 파괴하신 결과를 거두게 되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엘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포로 생활 이후의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울고 애도하라는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는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의 근원이 빼앗겼으므로 분명히 이 일로 인해 화를 낼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제사장들은 애곡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애통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농작물이 망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 그래서 그것은 심판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거리를 영속시킬 것입니다.

1장 11절, 이 곡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들은 애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된 작물을 들어보세요.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시들고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들의 모든 나무가 다 말랐으니 인생의 기쁨이 말랐느니라.

그래서 각종 농작물을 빼앗겼고, 농부들은 이에 대해 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이 일로 인해 통곡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난으로만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의 시간을 회개의 표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께. 그렇습니다. 이러한 농작물과 식량, 생계를 잃는 등 육체적으로 끔찍한 일을 경험하셨고,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이유와 그 뒤에 있는 경고는 슬프게도 그 날이니라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라. 좋아요? 그는 당신이 방금 주의 날, 즉 메뚜기 재앙의 심판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고 도중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2장이나 1장에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부르심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두 번째 경고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 보세요. 그 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들어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발하여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쟁의 때가 있거나 재난의 때가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금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인식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이나 1절 끝부분에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개념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스바냐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날은 어둡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흰 물이 다시 사람들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3절에는 그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이는 요엘서의 주요 해석적 질문과 쟁점 중 하나를 제기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다른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상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는가, 아니면 은유적으로 읽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장과 2장은 동일한 메뚜기의 침입과 관련하여 전파된 단순히 변형된 메시지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2장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가올 또 다른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이 메뚜기 떼의 두 번째 물결이 닥칠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침략과 떼.

그래서 메뚜기가 2단계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이 구절에 주어진 또 다른 입장이자 또 다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세 번째 가능성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술성과 수사학, 그리고 그가 하는 방식에서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의 침입을 이용해 적군의 침입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져올 심판의 심각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뚜기 재앙이 땅을 휩쓸어 농작물을 멸절시키고 땅을 황폐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더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들이 그 땅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군대는 이 메뚜기 떼처럼 땅을 완전히 황폐시킬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 여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군대가 단순히 설명되고 있다면, 아니면 여기서 군대가 은유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달리는 군마와 같다고, 강력한 군대와 같다고, 아니면 성벽을 기어오르는 전사나 군인과 같다고 말합니까? 음, 전치사 like or as 히브리어의 용법 중 하나는 때로는 비교나 직유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비교가 정확히 이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되고 있는 사물의 정체성입니다. 요엘서 2장 1-15절에 보면, 아아 여호와의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나 멸망과 같이 임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침략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멸망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비교는 단지 유사성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군마와 같다, 강력한 군대와 같다, 전사와 같다, 군인과 같다고 말할 때 전치사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치사는 실제로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강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이닥칠 때,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유다가 직면하게 될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요청을 받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요엘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엘 2장 12-1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34:6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시며, 재난에 대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선지자가 방금 경고한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돌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니느웨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 18장 7-10절에서 본 것처럼, 미가의 설교, 예레미야 26-19절에서 본 것처럼,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자신이 위협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주시리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이 성회를 소집한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어떤 예식을 치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적군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 땅을 황폐케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군대가 누구인지, 무슨 위협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슬픈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가서 성전 설교를 한 다음 나중에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심판 예언의 두루마리를 읽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요소는 이 때가 유다 백성이 예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심판을 회피한 몇 안 되는 선택된 때 중 하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금식을 성별하고, 회중을 성별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국가적 위기이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작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만일 그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는 설명이나 진술, 표기법이나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백성들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라고 명한 일을 완수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결과로, 그리고 그들이 이미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심판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위협하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땅을 질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만족할 것이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북쪽 사람을 너에게서 멀리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메뚜기의 침입이 아니라 군대라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성스러운 절기를 지켰다거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반응은 백성들의 회개를 가리킨다. 그리고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2장 18절이 실제로 이 책의 경첩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심판, 울음, 애도, 금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회복의 약속과 심판을 돌이키고 심판 대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황충과 황충과 황충이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파괴적인 심판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그들에게 돌려줄 능력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로 메뚜기가 먹고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 대신에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 이 구절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실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Leslie Allen은 명시적인 회개 기록이 없더라도 Joel의 호소가 궁극적으로 성공했다고 가정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단식과 애도의 국가 예배에 모였고, 사제는 진정으로 회개한 공동체를 대신하여 정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전도를 통해 니스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심판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요엘서 2장에 나옵니다. 미가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 산 자체가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예레미야

26:17~19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18절이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할 가능성이 실제로는 이 절에 대해 제공되는 해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18절에 나오는 특정 동사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불완전 동사의 형태에는 접속사, 즉 vav가 앞에 붙습니다. 그렇다면 vayikto 동사 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이야기적인 사건으로 번역하지 않고 예언적 완전함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특별한 구성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예언적 완전성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 시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단순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부 통역사들은 실제로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부 영어 번역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King James,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등은 본질적으로 예언적 완성본으로 읽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 형태는 여기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는 동사 형태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크톨 동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많은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Nagowski, Stewart, Sweeney는 주석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평론가들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곳은 바이크톨

의 일반적인 사용이 우리가 preterits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서사와 이야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전제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는 실제로 내러티브나 이야기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Troxell이라는 작가가 이 구절의 기사에서 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에서 언급한 것은 우리가 요나의 과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장 1절에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일종의 서술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의 과거 역사적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요엘이 주는 신탁을 가지고 있으며, 트록셀이 주장하는 것은 2장 18절의 이야기가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신탁 형식의 메시지는 그러나 우리는 조엘이 여기서 실제로 설교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 땅을 위해 질투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따라서 ESV와 Net Bible과 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는 주님이 질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이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접속사와 함께 있는 불완전 동사의 특별한 형태인 vayiktoi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 글을 읽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거 서술형 또는 과거 서술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20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이미 사신 즉각적인 축복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설자와 통역사가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심지어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회개와 그에 대한 응답.

그래서 여기 약속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잃은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언약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좋아요, 즉각적인 회복을 넘어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서 보았습니다. 포로 이후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즉각적인 일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엘서를 포로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받아들여도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모든 일을 뛰어넘는 최종 축복, 즉 최종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초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즉각적인 축복 뒤에, 또 내가 이를 취소한 후, 먼 장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회복, 즉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엘의 시대를 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해석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선지자들의 관점이 변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산을 바라보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 요엘이 본 가까운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가까운 장래에 이루실 약속을 그들에게 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날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엘서와 여기에 주어진 약속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로 나아가면서 요엘서 2장 28-32절에서 요엘이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너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과 여기서 보고 있는 현상이 요엘 2장 28-32절의 성취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성취는 교회의 마지막 시대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이 이것을 경험할 때 완성될 것이며, 언약의 충만한 축복이 경험되고 부여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서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따라서 예언의 이 부분은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에 찾아오는 궁극적이고 충만하며 마지막, 주님의 두려운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요소를 갖고 있고 아직은 없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지자가 연기와 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나는 여기서 전쟁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이 피로 변하는 것은 피처럼 보이는 월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유형의 사건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곧 일어날 자연 재해 또는 국가 재해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그것은 종종 전쟁이나 적군의 침공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엘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심과 함께 재난과 재난과 전쟁과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성서에서 그 성취를 살펴보면 현재 성취된 것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요엘은 가까운 성취와 오순절 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기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이 있기 전 주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마지막 재앙적인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부어짐과 불과 연기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것 모두가 가깝고 먼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요엘 3장에서는 선지자의 지평이 이 미래의 시대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나라에 집행될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최후의 심판, 곧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

이는 특정 위치를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곳은 여호와께서 열방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심판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최종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3장 10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내려오면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데려오셔서 또 다른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하였으니 약한 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용사라 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미가서 4장에서 종말론적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방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래의 왕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가들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것이며,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미가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평화를 마침내 가져오는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님의 마지막 날(3장 14절)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5.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다.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단지 유다에 대한 심판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물러가느니라. 그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온에서 포효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재앙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의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는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이 말한 이 혼란과 재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재난과 혼돈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제안이 있으며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 3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묘사는 구약 전체의 예언적 비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요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시고 모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의 환상에 나오는 구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행해지는 나라들을 정결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과 9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스가랴 14장과 그 전체 장에서 이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은 유다에 임할 심판과 그 성읍이 함락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배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여자들은 강간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의 3분의 2가 쫓겨나는 때가 올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열방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여호와께 경배하러 나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구약의 예언적 비전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 아마겟돈의 므깃도 골짜기에서 일어날 전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약의 예언적 비전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이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더해 줍니다. 유연 그 자체.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마지막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종말론적 전쟁의 비전은 구약에서 발견되고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 채워집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고, 열방을 정결케 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악과 사탄을 포함한 악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왕국을 위한 길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희망은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언적인 미래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볼 때 그림의 일부인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심지어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종종 우리가 이러한 예언적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을 현대 사건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대중적인 취급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Ian Duguid는 에스겔서 주석에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곡과 마곡의 적들이 그 당시 교회의 주요 적이었던 어떤 그룹의 사람들과 어떻게 동일시되었는지 언급합니다.

서기 4세기에 암브로스는 그들을 고트족과 동일시켰습니다. 7세기에 그들은 성지를 침략한 아랍인들이었다. 13세기에 그들은 몽골의 유목민이었습니다.

17세기에는 그들은 교황, 투르크인, 로마 황제였습니다. 19세기에는 러시아인이라는 견해가 냉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서 선지자들을 가르쳤을 때 저에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항상 우리가 곡과 마곡이라고 말합니까? 최근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에 맞서 연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예언서의 목적은 우리가 적을 식별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세계적인 반역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포함되나요? 우리는 모른다.

그때에도 미국이 참석할 것인가? 예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판단의 결과에 관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종류의 다른 것들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평화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Ian Duguid와 나는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전체 개념에 대한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요엘서 3장,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언급한 이 모든 구절들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암호화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주의 깊게 풀어 최종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징적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회개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고 언젠가는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어느 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평화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요엘 시대의 사람들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고대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들과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능력과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요엘서의
29번째 세션입니다.